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비교연구

고홍월(高虹月)*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 및 유학생의 적응문제를 이해하고 조력하기 위해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을 비교문화심리학적 관점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한·중 대학생에게 각각 중국어판과 한국어판의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와 행복감검사(MUNSH)를 실시하여 최종 437명(중국 대학생 202명, 한국 대학생 235명) 대학생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t 검정과 다변량분석을 통해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 하위영역,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을 비교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중 대학생은 신체화, 공포불안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한·중 여학생 간의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정상범위 내에서 중국 여학생이 한국 여학생보다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정신건강 총점에서 더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과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한·중 대학생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 등에 비추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 주요어 : 정신건강, 주관적 행복감, 비교연구, 한국 대학생, 중국 대학생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이웃나라이든 먼 나라이든 사회경제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유학생 수도 급속도로

*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

증가하고 있다. 단기간의 관광과 업무상의 체류보다 장기간 유학생생활을 하거나 상주하는 외국인 인이 많아지고 있다. 유학생들은 학업부담과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들의 적응을 돕는 것이 시급해지고 있다. 유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속하는 문화와 다른 문화권에서 그 사회의 규범, 질서, 사회적 정서 및 통념에 순응(adaptation)을 하는 것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문화적응은 문화접촉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이다. 문화적응을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수준에서의 변화(Berry, 1997)로 이해할 수 있다. 속해있는 문화와 다른 문화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접하면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적응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질감을 느끼고 적응하고 변화하는 과정이 개개인 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각 문화권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문화에서 느끼는 이질감을 파악하고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 간의 차이를 감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응이 중요한 삶의 주제가 되었고, 특히 유학생이 그 중에 한 집단이다. 한·중 수교 후 최근 들어 각각 상대국의 유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다. 유학생 수의 양적 증가와 동시 관리상의 질적 개선을 병행해야할 단계이다. 대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유학생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각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학생이 적응상의 문제를 호소하지만 여기에서는 제한 중국 유학생, 재중 한국 유학생이 호소하는 문화적응 문제를 주로 살펴볼 것이다.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문화적, 학업적,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허춘영, 김광일, 이장한, 1999; 황해연, 2007 등), 재중 한국 유학생은 행정적 서류절차, 정치체계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의 어려움,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하였다(馮曉杭, 2007). 유학생들이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일부 제한 중국 유학생에게 대인관계 예민성, 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영역의 문제가 나타났다(허춘영, 1998). 최근에 이러한 한·중 대학생 비교 및 유학생에 대한 소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도를 위해 대학생과 유학생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유학생의 적응문제는 다양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서적 불안 등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으로 접근할 것이다. 정신건강을 “정신적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종류의 개인적·사회적 적응을 포함하여 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 있고, 통일된 성격의 발달이라고 한다”(미국 정신위생위원회, 1995, 임창재 2006에서 재인

용). 건강한 정신이란 균형과 통합을 이룬 성격,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성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나타내 보이며 자신뿐 아니라 주위 환경을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Wallin, 1952; Johoda, 1950, 최송미 2001에서 재인용). 유학생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신건강문제가 새로운 환경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유학생의 적응문제에 대해 정신건강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발표되면서(김재우, 2005; 엄수영, 2008; 허준영, 1998; 황해연, 2007 등) 유학생 지도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생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 문화와 접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 하위영역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상대국에서 유학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면 유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한·중 대학생은 복잡하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고 학업 및 취업 등 다양한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대졸자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대졸자의 고용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졸업지연, 취업난 등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사회진출을 앞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대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건강이 취약한 대학생은 대학생활 적응, 학업문제, 대인관계 등 영역의 어려움이 나타나고(박성숙, 1992),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대학생의 심리적응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작용하여 많은 심리적인 부담감(이은희, 2004)을 안겨주게 된다. 정신건강이 대학생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생활태도 및 사고방식, 학업,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김인자, 황응연, 1974; 박상학, 조용래, 1996; 원호택, 김순화, 1985; Nagurney, A. J., 2007; Warwick, I., Maxwell, C., & Statham, J., 2008 등).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신체병리, 정신병리와 연관이 되어 전반적인 적응을 방해하고 정신건강을 저해시킨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으며, 낙천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행복한 사람은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으며 자신감, 직업에 대한 의욕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Wilson, 1967), 반대로 불행감은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정신건강의 증후와 관련이 높다(이인혜, 1997). 행복을 표현하는 용어인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권석만, 2006)을 통해 정신건강과 행복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다른 한편, 문화적 차이란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생활양식의 차이이며 인간관계 구조의 차이라고 본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정한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성격의 차이이다(齊藤勇, 김영권, 1997). 문화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인간 내부의 생리와 인

간 외부의 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질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변증법적 동화의 과정이라고 본다(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학문분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심리성격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심리학 영역에서 문화에 대해 비교문화심리학, 토착심리학, 문화심리학의 세 갈래로 접근하는데, 비교문화심리학은 주로 양적 연구를 선호하는 실험심리학의 전통을 따르며 문화 간의 비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은 주로 질적 연구를 택해서 문화가 지닌 독특한 심리현상에 대해 폭넓게 접근한다.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은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취하며, 토착심리학은 내부자적인 관점에 치중하는 반면 문화심리학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관점을 모두 취한다(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세 갈래의 심리학적 접근 중에서 본 연구는 비교문화심리학의 접근방법인 양적 방법으로 한·중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비교문화심리학 차원에서 심리적 특성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상대 문화에서 겪게 되는 인지적, 대인관계적 맥락에서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향후 유학생의 교육·지도를 논의하고자 한다.

비교연구는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개념과 측정도구의 문화적 동등성 확보, 다양한 연구대상과의 접촉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험적 연구가 쉽지 않다. 개념과 측정도구의 문화적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전통적인 양적 비교연구에서 심리검사를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처음부터 점수의 동등성에 맞춰 검사를 번안하거나, 2) 비교 국가자료를 사용하여 해석하는 방법과 3) 검사를 번안하는 지침을 개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손원숙, 2002). 본 연구에서는 Symptom Checklist-90(SCL-90)과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MUNSH)의 한국어판과 중국어판을 사용하였는데 이 두 가지 검사는 점수의 동등성에 초점을 두어 번안한 검사라고 할 수 있다. SCL-90의 경우 두 나라에서 모두 표준화된 검사로 사용되어 점수의 동등성 문제가 크게 우려되지 않지만 MUNSH의 경우는 번안 후 표준화절차가 없어서 연구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도구의 문화적 동등성 문제는 이 분야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된 유학생과 대학생의 적응문제를 돕기 위해 한·중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문화심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역사적·문화적으로 비교적 유사한 나라이지만 사회적 체제, 문화적 특성의 차이로 대학생들은 상대국에서 상당한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해 구체적인 하위영역을 확인하고, 이들의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주관적인 행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 및 유학생에 대한 교육, 지도, 관리를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나라의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을 파악하기 위해 상술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토

할 것이다.

1. 한·중 대학생은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는가?
2. 한·중 대학생은 주관적 행복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3. 한·중 대학생은 성별에 따라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는가?
4. 한·중 대학생은 성별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가 있는가?
5.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과 중국의 4년제 대학의 대학생이다. 연구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일차적인 선별을 실시하였다. 학과 및 전공계열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의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응답이 부실한 설문자료 등을 제외한 최종분석 대상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중 한국 대학생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의 학생 235명이고, 중국 대학생은 한국과 인접하고 문화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山東省(산동성)지역의 대학생 202명이다.

<표 1> 연구대상의 분포

(N=437)

	성별		학년				계열		합계	평균 연령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인문사회	이공계		
한국 대학생 명(%)	110 (46.8)	125 (53.2)	62 (26.4)	73 (31.1)	45 (19.1)	55 (23.4)	160 (68.1)	75 (31.9)	235 (100)	21.5
중국 대학생 명(%)	46 (22.8)	156 (77.2)	36 (17.8)	39 (19.3)	55 (27.2)	72 (35.6)	98 (48.5)	104 (51.5)	202 (100)	21.6

2. 연구도구

1) 간이 정신진단검사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파악하기 위해 전신건강과 관련된 몇몇 도구를 검토하였다. 정신건강

을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 측정학적 동등성을 확보한 도구를 선정해야 했다. 몇몇 도구 중 한국과 중국에서 타당도를 확보하여 사용되고 있는 Derogatis 등(1977)이 개발한 Symptom Checklist-90(SCL-90)을 선정하였다. SCL-90은 한국에서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에 의해 간이 정신진단검사로 재표준화 되었고, 중국에서는 症狀自評量表-90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 되었다(王征宇, 1984; 金華, 吳文源, 張明園, 1986). SCL-90은 총 90 문항, 5점 척도로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9개의 증상영역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97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2) 행복감 척도(MUNSH)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을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 (MUNSH)로 측정하였다. MUNSH는 Kozma와 Stones(1980)에 의해 개발되었고, 총 24문항 3점 형식의 척도이다. 이 척도는 정동(情動)(10문항)과 생활만족감(14문항)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urh와 Kim(1990)이 번안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고, 중국어판으로는 紐芬蘭紀念大學幸福度量表(MUNSH, 楊顏春, 1993)를 사용하였다. Hurh와 Kim(1990)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는 .90이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0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437명 한·중 대학생의 설문자료를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문화적 타당성과 관련된 잡음을 최대 줄이기 위해 표준화점수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 합치도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문제는 나라와 성별에 따라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주관적 행복감을 집단 수의 따라 t 검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를 파악하는 마지막 연구문제는 상관분석을 통해 정신건강 영역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는 정신건강 하위영역들이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할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정신건강 하위영역 간의 다중공산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으로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III. 결과

1.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 차이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통해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정신건강 총점과 하위영역을 각각 비교한 결과(<표 2>), 신체화 하위영역($F=7.394, p<.01$)과 공포불안 하위영역($F=22.193,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타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등 하위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신체화 및 공포불안 영역에서의 차이에 대한 해석 및 논의는 논의부분에서 기술할 것이다.

<표 2>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의 분포 및 차이 (N=437)

종속변수	중국 대학생 (202명)	한국 대학생 (235명)	F(1, 428)
	M(SD)	M(SD)	
SOM(신체화)	-.219 (.845)	.171(1.069)	7.394**
OC(강박증)	-.185 (.991)	.151 (.981)	.016
IS(대인예민성)	-.172(0.955)	.137(1.017)	.291
DEP(우울)	-.110 (.988)	.095(1.003)	.085
ANX(불안)	-.019(0.933)	.002(1.043)	3.079
HOS(적대감)	.032 (.995)	-.039 (.991)	.192
PHOB(공포불안)	.217(1.087)	-.211 (.832)	22.193***
PAR(편집증)	-.016(1.009)	-.005 (.980)	.009
PSY(정신증)	.069 (.985)	-.077 (.989)	.048
SCL(총점)	-.071(1.009)	.062 (.990)	.283

** $p<.01$, *** $p<.001$

2. 한·중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차이

한·중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표 3>), 한·중 대학생은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가 없었다.

<표 3> 한·중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의 분포 및 차이 (N=433)

	사례분포	주관적 행복감(표준화 점수)		t
	n (%)	M	SD	
중국 대학생	202(46.7%)	-.0639	.9290	-1.244
한국 대학생	231(53.3%)	.0559	1.0571	

3. 한·중 대학생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하위영역의 차이

한·중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전신건강 하위영역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는 다음 <표 4>와 같다. 중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이 적대감과 편집증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신체화, 강박,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공포불안, 정신증 영역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그 중 신체화($F=10.75, p<.001$), 강박증($F=6.28, p<.001$), 대인예민성($F=6.06, p<.001$), 우울($F=5.56, p<.001$)영역은 중국 여학생과 한국 여학생 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정신건강 하위영역이 모두 정상범위 안에 있지만 한국 여학생은 중국 여학생보다 위와 같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녀 대학생 간에는 불안과 정신건강 총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중국 남녀 대학생 사이에는 공포불안($F=13.11, p<.001$)과 정신증($F=5.313, p<.01$)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중국 남학생과 한국 남학생 간에는 불안($F=6.88, p<.001$), 공포불안($F=13.11, p<.001$)과 정신증($F=5.13, p<.01$)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상 모든 집단 간의 차이가 정신건강 정상범위 내에서의 차이이다.

<표 4>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의 분포 및 차이 (N=433)

종속변수	중국 대학생(202명)		한국 대학생(231명)		C(1, 3)	Scheffe
	남학생(46명)		여학생(156명)			
	M(SD)	M(SD)	M(SD)	M(SD)		
SOM(신체화)	.108 (.914)	-.315 (.801)	-.011 (.968)	.332(1.130)	10.75***	d>b
OC(강박증)	-.025 (.949)	-.232(1.001)	.003 (.997)	.281 (.953)	6.28***	d>b
IS(대인예민성)	.076 (.935)	-.200 (.961)	-.044(1.007)	.297(1.003)	6.06***	d>b
DEP(우울)	.0118(.801)	-.146(1.036)	-.135 (.985)	.297 (.979)	5.56***	d>b
정신건강						
ANX(불안)	.315(1.016)	-.117 (.887)	-.250 (.949)	.223(1.075)	6.88***	a>c, d>b d>c
HOS(적대감)	.318(1.095)	-.052 (.951)	-.132(1.035)	.042 (.978)	2.44	ns
PHOB(공포불안)	.629(1.109)	.095(1.054)	-.370 (.719)	.071 (.899)	13.11***	a>b, a>c, a>d, b>c
PAR(편집증)	.244 (.959)	-.093(1.013)	.093 (.968)	.072 (.988)	1.91	ns
PSY(정신증)	.469(1.072)	-.049 (.929)	-.194(1.007)	.025 (.965)	5.13**	a>b, a>c
SCL-90총점	.245(1.001)	-.164 (.995)	-.142 (.985)	.241 (.966)	5.62***	d>b, d>c

** $p<.01$, *** $p<.001$; a=중국 남학생, b=중국 여학생, c=한국 남학생, d=한국 여학생

4. 한·중 대학생 성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한·중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표 5>, 앞에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중국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 간에는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없었으

<표 5> 성별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분포 및 차이 (N=429)

종속변수	중국 대학생(202명)		한국 대학생(227명)		F(1, 3)	Scheffe
	남학생(46명)	여학생(156명)	남학생(106명)	여학생(121명)		
	M(SD)	M(SD)	M(SD)	M(SD)		
행복감	-.402(.944)	.036(.904)	.094(1.031)	.022(1.082)	2.92*	c>a

* p< .05, a=중국 남학생, b=중국 여학생, c=한국 남학생, d=한국 여학생

나 성별에 따라 한국 남학생과 중국 남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F=2.92, p< .05). 국가와 성별에 따라 구분된 네 집단 중에서 중국 남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이 가장 낮았고 한국 남학생과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여기에서는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표 6>, <표 7>과 같이 각각 살펴보았다.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그 사이의 관계성을 표면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주관적 행복감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중국 대학생의 상관계수는 -.546에서 -.402까지 분포되었고, 한국 대학생은 -.697에서 -.351까지 나타났다. 정신건강 하위영역 간의 상관계수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중 대학생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 중국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N=202)

	행복감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신체화	-.437**									
강박증	-.510**	.578**								
대인예민성	-.491**	.538**	.813**							
우울	-.540**	.638**	.793**	.782**						
불안	-.492**	.738**	.799**	.748**	.783**					
적대감	-.462**	.625**	.683**	.672**	.676**	.761**				
공포불안	-.402**	.660**	.607**	.669**	.616**	.732**	.709**			
편집증	-.454**	.623**	.761**	.742**	.734**	.757**	.726**	.616**		
정신증	-.415**	.656**	.767**	.752**	.757**	.815**	.700**	.664**	.769**	
정신건강 총점	-.546**	.784**	.888**	.865**	.886**	.921**	.834**	.797**	.856**	.891**

** p< .01

<표 7> 한국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 (N=231)

	행복감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신체화	-.441**									
강박증	-.568**	.524**								
대인예민성	-.498**	.513**	.791**							
우울	-.697**	.603**	.809**	.785**						
불안	-.557**	.679**	.726**	.720**	.789**					
적대감	-.493**	.524**	.593**	.640**	.633**	.634**				
공포불안	-.351**	.537**	.440**	.547**	.534**	.611**	.519**			
편집증	-.436**	.450**	.686**	.767**	.660**	.651**	.625**	.518**		
정신증	-.612**	.619**	.708**	.746**	.744**	.797**	.671**	.600**	.745**	
정신건강총점	-.637**	.744**	.857**	.871**	.898**	.893**	.752**	.664**	.793**	.884**

** $p < .01$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행복감을 비교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교문화적 이론은 실험심리학의 전통적 방법으로 문화간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고, 토착심리학이나 문화심리학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문화적 현장을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차이로 인해 각 접근의 장점과 한계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하기 위해 이러한 접근의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비교문화심리학은 비교 대상의 문화적 특성을 동등한 차원에서의 양적 차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문화적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통해 비교할 특성을 실증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문화의 다양성과 상이성을 고려해보면 독특한 특성을 새로 발견하거나 다른 특성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토착심리학이나 문화심리학은 질적 접근법으로 해당 문화에 대해 내부자적, 외부자적 관점으로 문화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고, 각 문화의 새로운 특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질적 접근법과 양적 접근법의 다른 점을 이해함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인간의 보편적 심리적 특성이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한·중 대학생의 정신건강 특성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기 위해 비교

문화심리학적 접근을 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은 중국 대학생과 신체화, 공포불안의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 한·중 대학생간에 정신건강 하위영역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한국 여학생과 중국 여학생이 많은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주관적 행복감에서는 전체 한국 대학생과 전체 중국 대학생 사이의 차이는 없었으나 중국 남학생과 한국 남학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모두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문화적 특성을 관련지어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정상범위 내에서 중국 대학생의 신체화 하위영역의 문제가 한국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공포불안은 한국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수준을 보였다. 한·중 고등학생의 비교연구(박용천, 김광일, 방금녀, 고복자, 김태호, 1997)와 한·중 대학생의 비교연구(최송미, 199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였다. 이 두 연구에서 한국 학생이 중국학생보다 높은 적응수준과 정신건강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와 유사한 결과(Warwick, I., Maxwell, C., & Statham, J., 2008)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 연구대상에 대한 표집의 차이와 자료수집 시점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자료수집 당시 중국은 사천성(四川省) 대지진과 티베트 유혈사건이 일어나서 사회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사회적 불안 속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기적인 특성이 중국 대학생의 공포불안영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서 이러한 시·공간적 제한을 받게 되었다. 정상범위 내에서 신체화 하위영역의 차이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체나 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적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 같은 나라의 남녀대학생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한·중 대학생 간에는 여학생 간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의 차이와 문화 간의 차이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모두 정신건강 정상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정상범위 내에서의 집단간 차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문화권 내의 차이는 중국 남학생이 중국 여학생보다 공포불안과 신경증 영역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고, 한국 여학생은 한국 남학생보다 불안과 정신건강 총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간의 차이는 한국 여학생과 중국 여학생이 많은 영역(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정신건강 총점)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한국 여학생이 중국 여학생보다 위와 같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국 여학생과 한국 여학생의 이러한 확연한 차이

는 한·중 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남녀의 사회적 평등 문제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여성이 신체화, 강박, 대인관계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 등 대부분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남성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정향균, 1989). 중국 남성과 중국 여성에 대한 정신건강 비교가 중요한 연구문제로 탐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문화간의 차이로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중국 여성과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취업, 육아, 가사분담, 수평적 부분관계, 사회적 지위, 정치적 참여 등 다양한 면에서 높은 지위를 확보하였다(馮丹平, 2007). 중국은 법적으로 남녀평등, 부분평등, 여성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보면 중국 여자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유롭게 대학생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사회진출의 제약을 받게 되어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사회적, 암묵적 억압 속에서 순응하게 된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중국 여학생과 이러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으로 풀이한다.

셋째, 행복감에 대한 비교에서 한·중 대학생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에 따라 중국 남학생이 한국 남학생보다 덜 행복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 역시 자료수집 당시 중국의 불안정한 사회상황이 중국 남학생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한·중 대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정신건강 총점에서 한국 여학생과 중국 여학생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한국 여학생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순응하고 이를 문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한·중 문화의 독특한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내부자적, 외부자적 관점으로 비교분석할 것을 기대한다.

넷째,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 하위영역과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신건강 하위영역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모두 .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중 대학생의 비슷한 상관관계 양상이 보편적 심리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한·중 대학생간의 비교를 통해 문화간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두 나라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이 한·중 여학생간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현재 상태에 대한 파악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차이의 근원이나 이러한 차이로 인한 결과 등은 본 연구

에서 탐구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간의 교류에서의 어려운 점, 특히 유학생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예상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그러한 양적 연구의 성격상 현상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였으나 비교된 부분에 대한 사회적, 맥락적 이해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화심리학 영역의 다른 접근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이 이러한 연구결과의 한계를 낳았으며 향후 더 추가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차이의 근원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학생 지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대학생이 성별에 따라 많은 정신건강 하위영역에서 이질집단인 것을 확인되었다. 한·중 대학생이 모두 건전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이지만 서로 상대 문화에 이입했을 때 이질감을 느끼고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인관계, 우울, 불안 등이 자주 호소되는 문제이다(최송미, 1999; 하정희, 2008; 허준영, 김광일, 이장한, 1999; 황해연, 2007; 馮曉杭, 2007 등). 이러한 적응상의 문제를 돕기 위해 상대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등을 다차원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부각된 다문화 교육, 다문화 내담자에 대한 상담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문화의 이질성은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다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가치 평가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이질 문화에 대한 수용,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전반적인 다문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타 인종, 타 문화에 대해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류 상의 어려움도 조금씩 해소될 것이다.

셋째, 비교문화심리학에서 개념의 동등성과 측정도구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해 문화적 동등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의미 있었지만 측정도구의 동등성과 자료수집에서의 동등성 등 부분은 미흡하였다. 두 가지 측정 도구 중에서 주관적 행복감척도가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부분에서 미흡하였고, 다른 한편 자료수집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는 한·중 두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시간적 차이와 사회적 요소가 자료 동등성 확보에 소음으로 작용된 부분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특히 자료 수집당시 중국의 사회적 상황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통제나 자료수집 시기에 대한 사전 계획과 사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4).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권석만(2006).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김인자, 황응연(1974).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 김재우(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馮丹平(2007), 한국과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비교 : 현대여성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학, 조용래(1996).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I). 신경정신의학 35, 366-377.
- 박성숙(1992). 학교의 심리적 환경 및 학업성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천, 김광일, 방금녀, 고복자, 김대호(1997). 고등학생 스트레스의 횡문화적 연구: 연변의 한족, 조선족 및 서울의 한국인 비교,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6, 304-313.
- 손원숙(2002), 성격검사의 문화 타당도 연구, 조사연구 3(2), 1-15.
- 송원영, 리난(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59-173.
- 엄수영(2008), 유학생의 문화충격에 의한 대인신뢰와 신뢰행동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호택, 김순화(1985).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일 연구. 학생연구(서울대학교) 20, 43-53.
-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25-48.
- 이인혜(1997). 성격, 유쾌한 및 불쾌한 생활경험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NEO 성격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209-219.
- 임창재(2006), 정신건강, 형설출판사.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향균(1989), 사회적 지위 및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齊藤勇, 金永權(1997). 대인적 욕구에 대한 한·일 대학생들의 비교문화 심리학적 연구, 일본학보

39, 313-326

- 최상진, 한규석(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123-144
- 최송미(2001), 한·중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전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학생생활연구 6,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생활센터, 117-132.
- 하정희(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 437-496.
- 허춘영(1998), 제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실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춘영, 김광일, 이장한(1999),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정신건강연구 14,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 107-133.
- 황해연(2007), 제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馮曉杭(2007), 韓國留學生的跨文化適應與心理健康, China Academic Journal Electronic Publishing House. <http://www.cnki.net>.
- 金華, 吳文源, 張明園(1986), 中國正常人SCL-90評定結果的初步分析, 中國神經精神疾病雜誌 12, 26-263
- 王征宇(1984), 症狀自評量表(SCL-90), 上海精神醫學 2, 68-70
- 楊顏春(1993), 紐芬蘭中紀念大學幸福度量表(MUNSH), 中國心裏衛生雜誌增刊, 90-92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_____(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615-631.
- Derogatis LR(1977): SCL-90(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Derogatis LR, Rickels K & Rock AF(1976): *The SCL-90-R and the MMPI: A step in the validation of a new report scale*. Brit J Psychiat 128.
- Hurh, W. M., & Kim, K. C.(1988). *Uprooting and adjustment: A sociological study of Korean immigrant's mental health*, Final report submitted to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Hurh, W. M., & Kim, K. C.(1990). Correlates of Korean immigrants' mental health,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8, 703-711.
- Kozma, A., & Stone, M. J.(1980). The measurement of Happiness: Development of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MUNSH), *Journal of Gerontology*, 35, 906-912
- Nagurney, A. J.(2007). The effects of relationship stress and unmitigated communion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utcomes, *Stress and health*, 23, 267-273

Warwick, I., Maxwell, C., & Statham, J.(2008). Supporting mental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younger students in further education,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32, 1-13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 논문접수 2008년 10월 1일 / 1차 심사 2008년 12월 5일 / 2차 심사 2009년 3월 8일 / 게재승인 2009년 3월 16일

* 고흥월: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연구로는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성숙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문제 분석", "한국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성숙수준과 의사결정 상태와의 관계", "다문화가정 아동 상담 길잡이" 등이 있다.

* e-mail: gaohy1@snu.ac.k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Mental Health and Happiness between Chinese and Korean College Students

Hong Yue Gao*

This study compared mental health and happiness between Chinese and Korean college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437 college students(Chinese students 202, Korean students 235). Through t-test, M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somatization and phobic anxiety between the Chinese and the Korean college student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hinese female students and the Korean female students in the somatization, obsessive-compulsive, interpersonal sensitivity, depression and anxiety. The Chinese students and the Korean students showed th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and mental health. Through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mental health, happiness, comparison Study, Chinese college students, Korean college students

* Senior Researcher,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